아시아 물류의 고속도로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사업 한국이 주도!

본 내용은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4일간 진행된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연수 교육 및 제4회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정기총회 내용입니다.

- 편 집 자 주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연수 교육 및 제4회 APSF 정기총회 마쳐"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7월 14부터 17일, 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마나라 합성 컨벤션센타에서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연수 교육과 제4회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사진1 :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연수교육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은 이번이 3회째로 말레이시아 SILIM(말레이시아 표준관리원)를 포함한 23명의 말레이시아 연수생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 1명 총 27명이 참가하여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의 개념과 목적, 내용, 기대효과 구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연수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연수 첫날 개강식에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박은규 상근 부회장은 제3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 연수생들에게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시아 물류선진화에 선구자적인 주도적 물류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과학서비스 표준관리원의 라작 부위원장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정지영 참사관의 축사가 있었다.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은 아시아 물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아세안 5개국(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물류인재 양성 사업으로 이러한 물류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제 1단계, 2단계인 아시아 각국의 합의도출, 물류인재 양성 단계이며 이미 아시아 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생은 140여명에 달하고 2010년 인도네시아(제4회) 연수를 통하여 200여명에 이르게 되어 앞으로 이들의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은 이들을 통하여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의 단계별 전략인 제3단계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을 자국 규격으로 채택하고 제4단계에서는 자국 산업에 사용을 촉진하여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의 최종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4회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파렛트시스템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제조직인 APSF의 제4회 정기총회가 지난 7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마나라 합성 컨벤션센타에서 제3회 아시아 유닛로드스쿨 수료식에 이어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8개국(정회원 6개국 :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옵서버 2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대표 32명이 참가하여 2008년도 실적보고, 2009년 사업계획 보고와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부회장 2명(태국, 필리핀

각 1명)을 선출하고, ISO TC51 아시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ISO TC51에서의 아시아 역내 ISO 표준규격 제안·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동제안한 ISO 8611-1, 8611-2, 8611-3 개정과 박스파렛트 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에 합의 하였다.

사진2 : 제4회 APSF 정기총회

이번 총회에는 한국에서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 서병륜 회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 이경호 회장, (사)일본파렛트협회(JPA) 오카다가즈오 회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 박은규 상근 부회장 등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임원 15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운영을 참여하였다.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의 구축은 참여국 모두에게 물류효율화의 직접적인 효과를 통한 아시아 물류선진화는 물론이고 아시아 역내 무역증진, 역내환경보호 자원절약 등의 거대한 메리트를 창출하여 참여국 모두에게 돌아가는 윈윈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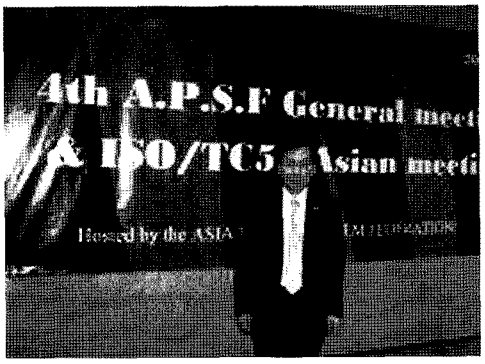

사진3 : APSF 회장 서병륜

한국의 KPCA가 이러한 유익하고 거대한 사업을 주도하여 괄무할만한 성과를 거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물류업계, 학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후원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1. APSF 회원국 확대와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의 자국 규격 채택 권장(한국, 중국은 이미 자국 규격으로 채택)
2. ISO TC51 아시아 위원회 활성화 P멤버 확대(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 한·중·일 제3차 물류장관회의 의제 건의안
   - 그린물류시스템구축 : 리터너블 파렛트·컨테이너 보급사업(아시아 표준규격)
   - APSF 마킹시스템 제안 : 무관세제도 도입
   - 생산 공장 인증제도 : APSF 일반회원 우선(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4. 2010년도 제5회 정기총회 및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운영계획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예정) : 2010년 6월

아시아 경제발전의 제3의 원동력, 아시아 물류고속도로, 아시아 물류선진화를 위한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사업이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도하여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